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Korean version of the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K-SOMS) 타당화*

박 도 담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이성애 이외의 성적 지향을 지닌 국내 성소수자들이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을 경험하는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oodford, Chonody, Kulick, Brennan과 Renn(2015)의 대학 내 LGBTQ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LGBQ Microaggressions on Campus Scale; LGBQ-MCS)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문항분석을 통과한 26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원척도와 달리 일반적·개인적·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구분되는 3요인 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들이 각 하위 요인을 측정하고 있으며 세 하위 요인이 더 높은 수준의 이차 요인인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측정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K-SOMS는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빈도는 일반적 소속감과 부적 상관을 지니는 반면에 우울 증상, 수용 걱정, 반동성애 폭력과는 정적 상관을 지니고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의 의의, 한계,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마이크로어그레션, 성적 지향, 성소수자, 척도 타당화, 요인분석

* 본 연구는 박도담(2017)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Korean version of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K-SOMS) 타당화’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67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대 심리학과
Tel : 02-3277-3911, E-mail : skyoo@ewha.ac.kr

성소수자는 존재 자체에 대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적 소재’로 자주 주목을 받는다. 논쟁에서 ‘동성애자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는다.’나 ‘동성애자를 싫어하지 않지만 찬성하지도 않는다.’와 같이 성소수자를 싫어하거나 존재 자체를 반대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개인의 취향, 표현의 자유, 전통적 가치의 보호로 여겨지곤 한다(Cowan, Heiple, Marquez, Khatchadourian, & McNevin, 2005). 논쟁의 이면에는 사회의 주류층인 이성애자가 성소수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인격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부여해 줄 수 있는 우위에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Yep, 2003; Simoni, & Walters, 2001). 이 전제는 개인적인 입장 표현이라는 명목 하에, 성소수자를 향한 ‘온건한’ 혐오의 표현이자 ‘암묵적’인 차별을 가능하게 하여 성소수자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게 한다(Sue, 2010a, 2010b).

점차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명백하고 노골적인 차별은 줄어들고 있으나, 차별의 양상은 위와 같이 교묘하고 모호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Nadal, 2013; Sue, 2010a, 2010b; Walls, 2008). 정신과 의사인 Pierce(1970)는 언뜻 보면 차별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에 위협적이거나 침해적인 행위에 주목하였다. 그는 “소수 인종을 폄하하는 미묘하고 곤혹스럽게 하는 모욕적인 행위”를 가리키기 위해, ‘아주 작은’을 의미하는 ‘micro’와 ‘공격’을 의미하는 ‘aggression’을 조합하여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냈으며 이를 현대의 인종차별주의라고 주장하였다. Sue 등(2007)은 이 개념을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

든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향한 적대적, 경멸적 또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언어적, 행동적, 환경적인 모욕이나 무시”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의 대상에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되는 유색인종, 여성, 성소수자, 소수종교 신자, 장애인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Nadal, Whitman, Davis, Erazo, & Davidoff, 2016; Nadal, 2013; Sue, 2010a, 2010b).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미묘하고(subtle) 은밀하고(covert) 대체로 무의식적으로(unconscious) 이루어지기 때문에(Nadal, 2013; Sue, 2010a, 2010b), 이를 행하는 주체와 당하는 객체 모두에게 차별로 인지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명시적인 차별 및 혐오범죄와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일직선상에서 비교하면, 후자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경미하게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에 비해 후자는 개인의 일생에서 더욱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에 따라 상당히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Pierce, 1970). 성소수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과 관련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 수용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oodford, Chonody, Kulick, Brennan, & Renn, 2015; Woodford, Kulick, Sinco, & Hong,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한 성소수자일수록 회피, 자책, 과음 등의 부적응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Kalb, Roy Gillis, & Goldstein, 2018; Scharer & Taylor, 2018).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 및 인식 과정에까지 악영향을 끼

칠 수 있다.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가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더 경험할수록 정체성 혼란을 크게 느끼거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arno & Wright, 2013; Wright & Wegner, 2012).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포함하는 특수한 정신 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Nadal, Rivera, & Corpus, 2010). 동성애자와 양성애자가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더 많이 경험하거나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심각한 PTSD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Robinson & Rubin, 2016).

서구권의 국가들, 특히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연구 및 공론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 낙인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그러나 국내 소수의 연구결과들은 여러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도 성소수자의 사회적 위치는 “소수자 속의 소수자”라고 불릴 만큼 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속한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가상준, 2016; 김상학, 2004). 2002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외국인노동자로 구성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부정적 감정,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김상학, 2004). 이와 유사하게 2012년과 2014년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동성애자, 뉴라이트, 전교조, 외국인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혐오되는 집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혐오의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가상준, 2016).

2016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으로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그 이외의 여성 및 남성에게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서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비난받거나 범죄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40%에서 60%의 성소수자가 혐오표현 경험의 영향으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거나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몇몇 연구는 동성애자가 경험하는 성적 지향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자살사고를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은경, 권정혜, 2004; 허정은, 박경, 2004),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사회적 낙인 인식이 사회적 지지각 수준과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이는 삶의 만족도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강병철, 2011).

국내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국내의 성소수자가 다른 소수자들에 비해 차별에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백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어그레션도 더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를 향한 여러 폭력 및 차별의 전체적인 양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상담자가 성소수자를 내담자로 만나게 되는 상담 장면에서 마이크

로어그레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Shelton과 Delgado-Romero(2011)의 연구에 의하면, 성소수자 내담자는 상담자가 성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과하게 다루었을 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좌절하거나 분노하였다. 또한 성적 지향의 중요성이나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영향이 과소평가되었을 때, 상담의 효과성과 상담자의 능력 및 노력에 대한 회의감을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담 장면에서의 상담자에 의한 성적 지향과 관련된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을 약화시키고 내담자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Spengler, Miller, & Spengler, 2016). 따라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행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해외 선행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성소수자들의 실생활과 상담 장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Lui & Quezada, 2019; Nadal et al, 2016). 그러나 국내 연구 중에는 박준호(2014)의 연구만이 성소수자 마이크로어그레션 개념에 주목했을 뿐, 이외에는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 또는 타당화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소수자 마이크로어그레션 연구와 상담자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타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개발 및 타당화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는 Balsam,

Molina, Beadnell, Simoni와 Walters(2011)의 유색인종 성소수자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LGBT People of Color Microaggressions Scale; LGBT-PCMS), Wright와 Wegner(2012)의 반동성애적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Homonegative Microaggressions Scale; HMS), Swann, Minshe, Newcomb과 Mustanski(2016)의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Inventory; SOMI), Woodford 등(2015)의 대학 내 LGBQ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LGBQ Microaggressions on Campus Scale; LGBQ-MCS)이다.

위의 네 척도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LGBT-PCMS는 유색인종인 성소수자가 인종주의와 이성애중심주의로 인한 다중적인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할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된 척도이다(Balsam et al, 2011). 총 18개의 문항에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 인종 집단 내 이성애중심주의', '성소수자 집단 내 인종주의', '데이트 및 친밀한 관계 내 인종주의'로 인한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빈도를 측정할 수 있어 복합적인 소수자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험 여부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정서적 반응을 묻는 문항이 혼재되어 있어, 순수하게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빈도만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백인에 의한 인종차별에 주목하고 있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다음으로 HMS는 Sue 등(2007)이 분류한 인종차별적인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유형을 참고하여, 동성애자와 양성애자가 경험하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Wright & Wegner, 2012). 총 45개의 문항이고 4개의 하위 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를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가정하는 언행,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는 언행, 이성애 중심적인 관점에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를 정형화하는 언행과 같은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하는 빈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의 HM(반동성애적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빈도, 성장 과정에서의 HM 경험 빈도, HM의 영향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응답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으며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편중되어 있어 일반화하여 사용하기 어렵다(Swann et al, 2016).

LGBT-PCMS와 HMS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종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청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빈도를 측정할 수 있는 SOMI가 개발되었다(Swann et al, 2016). 총 26개의 문항이며 하위 요인은 4가지로 ‘반동성애적인 태도와 표현’, ‘동성애 부정’,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적 거부’가 있다. 즉,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고정관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하나의 정체성으로 존중하지 않는 마이크로어그레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SOMI도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만을 적용 가능한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성애자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Woodford 등(2015)이 성소수자 대학생들의 경험의 이해를 심화시키면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개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LGBQ-MCS를 검토하였다. 이는 대학 환경에서 대학생 성소수자가 성적 지향

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하는 빈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이때 ‘LGBQ’는 약어로서 ‘L’은 여성 동성애자(Lesbian), ‘G’는 남성 동성애자(Gay), ‘B’는 양성애자(Bisexual), 그리고 ‘Q’는 비이성애자인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용어인 ‘퀴어(Queer)’를 의미한다. 즉, LGBQ-MCS는 한 개인이 어떤 성별에 성적, 낭만적으로 끌리는지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11)이 이성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LGBQ-MCS는 위의 다른 척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총 20개의 문항으로 척도의 길이가 적절하다. 또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차별화하여 전자만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하였고,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대인 관계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 이외의 성적 지향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문항 내용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성적 지향을 지닌 성소수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유무와 빈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할 척도로 LGBQ-MCS를 선택하였다.

LGBQ-MCS의 원개발자들은 직간접적인 폭력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성적 지향 관련 피해 질문지(Sexual Orientation Victimization Questionnaire), 대학 내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일반적 대학 환경 척도(General Campus Climate scale)의 하위 척도, 우울증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우울증 선별도구(PHQ), 학업적 어려

움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학생 최근 생활 경험 척도(College of Students' Recent Life Experiences scale)의 하위 척도를 이용하여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 빈도는 성적 지향 관련 피해, 우울증 수준, 학업적 어려움과는 정적 상관을, 대학 내 사회적 수용도와는 부적 상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 지향 관련 피해 중에서 신체적인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언어적 공격 및 위협에 해당하는 간접적인 폭력과 더 큰 상관성을 지니고 있어, 마이크로어그레션이 기존의 명백한 차별과 구분되는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LGBQ-MCS는 본래 대학생인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문항 내용이 특정한 집단에게만 해당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경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저자와의 상의하에 대상의 범위를 이성애 이외의 성적 지향을 지닌 국내의 성소수자로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문항 내용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원척도 개발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문항들을 모두 추가하였다. 이는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척도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문항이 다수 탈락할 위험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원척도 개발 과정에서 삭제된 문항들이 문화적으로 국내 대상자들에게는 더 적합할 가능성도 고려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할 척도는 원척도인 LGBQ-MCS와 적용 가능한 대상 범위와 문항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K-SOMS)'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SOMS가 어떤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지를 밝히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여, 한국인 성소수자들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설문 조사 참여자를 수집한 결과, 응답자는 총 1,721명이었는데 그중 설문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중도탈락한 806명을 제외하니 915명이 되었다. 그중 20명의 이성애자를 제거하였고, 마지막으로 전체 문항에 완전히 응답하지 않은 174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총 721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할 표본을 구분하기 위해, 선별된 응답 자료를 SPSS 케이스 선택 기능을 이용하여 각각 360명, 361명씩 두 집단으로 무선할당하였다. t-검증을 통해 두 집단이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집단을 사용하여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총 721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반수의 참여자가 연령은 20대(73.8%), 태어났을 때의 생물학적 성별(Sex)은 여성(84.9%),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시스젠더(Cisgender, 생물학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 77.5%), 성적 지향은 동성애자이거나 양성애자(72.8%), 가족, 친구 등을 포함하여 대인 관계에서 타인이 본인의 성적 지향

을 알고 있는 대략적인 비율은 25%(57.4%), 종교는 무교(74.3%), 월 평균 순소득 100만원 미만(66.2%)으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먼저 원저자 중 한 명인 Michael R. Woodford에게 연락하여,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원척도 개발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문항까지 포함한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원척도의 번역 과정에는 총 3명의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구사자가 참여하였다. 한국어 번역은 심리학 석사 과정생인 전문 번역가인 1인이 진행하였고, 역번역은 상담 전문가 1인과 대학생 1인이 실시하였다. 번역 및 역번역 과정에서 LGBT상담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상담 경력이 풍부한 상담 전문가 1인과 연구자의 성소수자를 포함한 여러 지인들에게 문항 내용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였다. 그 결과에서 나온 피드백을 고려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번역, 역번역본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영어에 능숙한 상담 전공 교수 1인으로부터 자문받은 후에 본 연구자가 문항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번안 과정을 완료한 후에 연구 참여 설명문, K-SOMS, K-SOMS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 인구통계학적 질문지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제작하였다. 연구 대상인 한국인이면서 성적 지향이 이성애가 아닌 성소수자를 표집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연구자의 성소수자 지인들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성소수자들이 활발히 이용하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다양한 성소수자를 표집하기 위하여 성소수자 인권 단체와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뿐만 아니라 정치 단체와 여성주의 단체 등에도 메일 또는 SNS를 통한 메시지를 보내 연구 참여 및 홍보를 부탁하였다.

측정 도구

K-SOMS가 다른 준거변수와 얼마나 서로 상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준거관련 타당도 중에서 모든 연구 변수가 동일한 시기에 측정되었을 때 확인 가능한 동시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에 원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먼저 원연구와 동일하게 우울증 선별도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를 사용했다(안제용, 서은란, 임경희, 신재현, 김정범, 2013). 그리고 원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학 내 사회적 수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썼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비이성애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 소속감 척도를 사용하였다(Malone, Pillow, & Osman, 2012). 또한 원연구에서는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척도들을 토대로 성적 지향과 관련된 폭력 피해 경험을 언어적 공격, 최소한의 신체적 공격, 신체적 공격으로 구분하여 빈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적 지향 피해 질문지라는 척도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각 하위 요인과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Woodford et al, 2015). 그러나 이 척도의 한국어판이 부재하여 이와 매우 유사하게 폭력 피

해의 직접성과 심각성을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김은경(2001)에 의해 번안된 반동성애폭력 척도를 이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원연구와 다르게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여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Mohr & Fassinger, 2000; Mohr & Kendra, 2011).

대학 내 LGBQ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LGBQ Microaggressions on Campus Scale; LGBQ-MCS)

LGBQ-MCS는 직접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인 관계적 차원과 법, 정치, 교육, 미디어 등을 포괄하는 환경적 차원에서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의 경험 빈도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Woodford 등(2015)이 개발한 척도이다. 대인 관계적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15문항, 환경적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 개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던 대인 관계적 차원의 10문항, 환경적 차원의 1문항을 추가하여 총 31문항을 이용하였다. 6점 리커트 척도로서 응답 가능한 범주로 ‘전혀 없다(0)’, ‘거의 그렇지 않다(1)’, ‘드물게 그렇다(2)’, ‘가끔 그렇다(3)’, ‘자주 그렇다(4)’, ‘매우 자주 그렇다(5)’가 있다.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환경에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레즈비언, 게이, 바이 혹은 퀴어여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과민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또는 넌지시 들은 적이 있다(대인 관계적 차원)’, ‘이성애자의 성관계에 국한된 성 건강 관련 정보를 받은 적

이 있다(환경적 차원)’가 있다. Woodford 등(2015)의 연구에서 대인 관계적 차원의 하위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 환경적 차원의 하위 척도는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전체 척도는 .93, 대인 관계적 차원의 하위척도는 .93, 환경적 차원의 하위 척도는 .67로 나타났다.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 9; PHQ-9)

PHQ-9은 우울증을 선별하고 그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 Spitzer 등(1999)이 개발한 척도로서, 최근 2주 동안 DSM-IV의 주요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묻는 총 9가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선별해내기보다는 우울 관련 증상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안제용 등(2013)이 국내의 주요우울장애군과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어판 PHQ-9를 이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응답 가능한 범주로 ‘전혀 없음(0)’, ‘며칠 동안(1)’, ‘1주일 이상(2)’, ‘거의 매일(3)’이 있다. 총점의 범위는 0점부터 27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예시 문항으로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와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가 있다. PHQ-9의 내적합치도는 주요우울증 또는 양극성장애 우울삽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박승진, 최혜라, 최지혜, 김건우, 홍진표(2010)의 연구에서는 .81,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안제용 등(2013)의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소속감 척도(General Belongingness

Scale; GBS)

GBS는 전반적인 대인 관계에서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alone 등(2012)이 개발한 척도로 총 1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보람(201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 하위 요인인 ‘거절/배제(Rejection/Exclusion)’와 ‘허용/소속(Acceptance/Inclus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은 6개이다. 7점 리커트 척도로서 응답 가능한 범주는 ‘전혀 아니다(1점)’부터 ‘보통이다(3점)’, ‘매우 그렇다(7점)’까지 있다. 거절/배제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은 역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12점부터 84점까지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감이 큼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진다(거절/배제)’이며, ‘사람들은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준다(허용/소속)’가 있다.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Malone 등(2012)의 연구에서 GBS의 내적합치도는 .92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보람(2015)의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반동성애폭력 척도(Anti-gay Violence Scale)

반동성애폭력 척도는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거나 동성애자라고 추측하는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언어적 및 신체적 폭력의 경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Dean과 Martin(1992)이 개발하였다. 원래 동성애자를 위한 측정도구로 개발되었으나 문항 내용은 특정한 성적 지향의 성소수자의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에서는 김은경(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이며 수준 1에서

수준 3으로 갈수록 폭력 피해의 직접성과 폭력성이 증가하게 된다. 각 수준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준 1에는 언어적 폭력 및 위협, 수준 2에는 물건 던지기, 침 빨기, 미행, 수준 3에는 직접적인 신체적 및 성적 폭행 등이 포함된다. 반동성애폭력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응답 가능한 범주로 ‘없음(0점)’, ‘1번(1점)’, ‘2번(2점)’, ‘3번 이상(3점)’이 있다. 총점의 범위는 0점부터 2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동성애폭력을 더 많이 경험했음을 뜻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욕설 등의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수준 1)’, ‘누군가에 의해 미행이나 추적을 당한 적이 있다(수준 2)’,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의 신체적인 구타를 당했다(수준 3)’가 있다. 반동성애폭력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김은경(2001)의 연구에서는 .72,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이호림(2015)의 연구에서는 .82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 척도(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Scale; LGBIS)

LGBIS는 Mohr와 Fassinger(2000), Mohr와 Kendra(2011)가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총 27문항이고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는 ‘은닉 동기(Concealment Motivation)’, ‘정체성 불확실(Identity Uncertainty)’, ‘내재화된 동성애부정(Internalized Homonegativity)’, ‘고된 과정(Difficult Process)’, ‘수용 걱정(Acceptance Concern)’, ‘정체성 우월(Identity Superiority)’, ‘정체성 중심(Identity Centrality)’, ‘정체성 긍정(Identity Affirmation)’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

연(2013)이 번안한 척도를 이용하되, 하위 척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상관성을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되는 하위 요인인 정체성 우월과 정체성 중심을 제외하였다. 또한 성적 지향이 이성애가 아닌 모든 성소수자에게 LGBIS의 문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어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6점 리커트 척도로서 응답 가능한 범주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 ‘동의하지 않는다(2)’,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3)’, ‘약간 동의한다(4)’, ‘동의한다(5)’, ‘매우 동의한다(6)’가 있다. 예시 문항으로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고된 과정)’, ‘나는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이 기쁘다(정체성 긍정)’가 있다. LGBIS의 내적합치도는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김성연(2013)의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한 하위 척도 순으로 .65, .66, .83, .80, .70, .75, .81, .88로,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장지운(2016)의 연구에서는 .71, .76, .84, .82, .65, .77, .80,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57, .65, .83, .81, .63, .87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먼저 문항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 요인별 문항 간 상관,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과한 문항들을 이용하여, K-SOMS의 요인 개수와 요인구조가 LGBQ-MCS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찰변수와 잠재변수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김수영, 2016). 요인회전의 방법으로는 원

연구와 동일하게 요인 간의 상관을 가정하는 사각회전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구조를 선명하게 판단하기에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최신의 방법인 Geomin을 선택했다(김수영, 2016).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결정된 문항들 중 양호하다고 판단된 문항들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결정된 요인구조가 확인적 요인분석의 자료에도 적합한지 보기 위해, 관찰변수와 잠재변수의 관계에 대한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했다. 이때 고차적 요인분석(Higher Order Factor Analysis)을 통해 각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관찰변수인 문항들 간의 일차원성(Unidimensionality)뿐만 아니라, 상위 요인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들 사이에서도 일차원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일차원성은 척도가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문항들이 실제로 그 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을 때 나타난다(Ziegler & Hagemann, 2015). 만약 문항들 간에 일차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척도가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척도의 타당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문항들이 지닌 일차원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먼저 관찰변수인 문항들로 측정된 하위 요인을 일차적 잠재요인(일차 요인)으로 하는 일차요인모형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들 간의 일차원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일차 요인들로 측정된 상위 요인을 이차적 잠재요인(이차 요인)으로 하는 이차요인모형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하위 요인들이 본 척도가 궁극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하나의 상위 개념인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잘 측정하고 있는가, 즉 하위 요인들 간의 일차원성을 확인하였다.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온 지표를 토대로 “지표변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특성에 대하여 변수들끼리 이론적으로 정의한 대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나의 정도(김수영, 2016)”를 의미하는 구인타당도인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의 자료 모두 단변량정규성(Univariate Normality)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여 모형의 추정 방법으로는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ML) 방법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χ^2_M 값 (χ^2 통계치 또는 χ^2 분포에서 모형의 관찰된 χ^2 값 또는 χ^2 검정통계량),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동시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K-SOMS가 GBS, LGBIS의 하위 요인인 정체성 긍정과는 부적 상관을 지니는 반면에, 반동성애폭력, PHQ-9, LGBIS의 하위 요인인 은닉 동기, 정체성 불확실, 내재화된 동성애부정, 고된 과정, 수용 걱정과는 정적 상관을 지닐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마이크로어그레션이 기존의 의도된 명백한 차별과 다르기 때문에 반동성애폭력의 수준이 낮을수록 K-SOMS와의 상관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문항분석과 동시타당도 확인을 위해서는 SPSS 21.0을,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Mplus 7을 이용하였다.

결 과

원척도 번안

번안 과정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내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안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원척도의 문항 내용에서 ‘LGBQ’라는 약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설문 대상자들에게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약어는 각 알파벳이 의미하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Bisexual)’, ‘퀴어(Queer)’로 풀어 표기하였다. 그리고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지닌 모호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원척도의 문항에서 사용된 ‘implied’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넌지시’란 단어를 사용하여 번안하였다. 번안 과정에서 특징적인 문항의 예로는 원척도의 ‘I hear the phrase, “no homo.”’라는 내용의 문항이 있다. 이를 그대로 직역하면 ‘no homo’라는 말이 나온 의도나 맥락을 삭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넣어 ‘누군가가 동성애자로 오해받기 싫어서 “난 게이는 아니지만”이라고 덧붙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로 번안하게 되었다. 번안된 척도의 문항의 번호와 내용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의 표 1에 모형의 요인부하량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분석 시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여 평균이 극단적인 값(1.5 미만이거나 4.5를 초과)을 갖거나 표준편차가 매우 작은

값(.7 이하)을 갖는 문항, 하위 요인별 문항 간 상관인 .8 이상이거나 .2 이하인 문항,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인 .3 이하인 문항,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가 상승하는 문항은 양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김남걸, 2001; 탁진국, 2007). 그 결과, 7번, 8번, 19번, 20번, 28번 문항을 제거하였고, 대체로 양호도 기준에 부합하지만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문항들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고 제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문항분석 결과 총 31문항 중에서 26개의 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하게 되었다.

360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몇 개의 요인이 적절한가, 즉 어떠한 요인구조가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요인 모형이 지닌 적합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모형의 적합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부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는 기준을 따르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는 .05 이하이면 “매우 좋은 적합도(close fit)”를, .08~.10은 “그다지 좋지 않은 적합도(mediocre fit)”를, .10 이상은 “심각하게 좋지 않은 적합도(poor fit)”를 의미한다(김수영, 2016; Browne & Cudeck, 1992). CFI와 SRMR은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닌다. 그러나

CFI는 값이 클수록, SRMR은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좋아진다. Hu와 Bentler(1999)는 CFI는 .95 이상, SRMR은 .08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

1요인 모형의 경우, χ^2_M 값은 967.344, df_M (χ^2 검정통계량의 표집분포의 자유도)은 299, $p < .001$ 으로 H_0 (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RMSEA는 .079(90% 신뢰구간 .073~.084), CFI는 .818, SRMR은 .063으로 나왔다. 2요인 모형의 χ^2_M 값은 665.578, df_M 은 274, $p < .001$ 으로 H_0 을 기각하였다. RMSEA는 .063(90% 신뢰구간 .057~.069), CFI는 .894, SRMR은 .048로 나와서 2요인 모형은 1요인 모형보다 향상된 적합도를 지님을 알 수 있다. 3요인 모형의 χ^2_M 값은 463.096, df_M 은 250으로 나왔으며 마찬가지로 $p < .001$ 이고 H_0 을 기각하였다. RMSEA는 .049(90% 신뢰구간 .042~.056), CFI는 .942, SRMR은 .034로 나와서 3요인 모형이 2요인 모형에 비해 우수한 적합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모형 비교를 위한 정보준거인 AIC를 참고하기로 하였다. 위계적으로 내재되지 않은 여러 모형들 중에 AIC지수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모형이 최선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김수영, 2016), 1, 2, 3요인 모형 중에서는 3요인 모형의 AIC지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N=360)

	χ^2_M	df_M	RMSEA	CFI	SRMR	AIC	90% 신뢰구간	
							하한	상한
1요인	967.344	299	.079	.818	.063	30960.182	.073	.084
2요인	665.578	274	.063	.894	.048	30708.417	.057	.069
3요인	463.096	250	.049	.942	.034	21869.372	.042	.056

주. χ^2 검정 결과, 모두 $p < .001$ 으로 나타남.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3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1요인 모형부터 3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AIC 지수는 표 1에 나와 있다.

1요인 모형부터 3요인 모형 중에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수준이며 원척도는 2개의 요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K-SOMS 또한 2요인으로 구성되는지 확인하고자 2요인 모형의 요인부하량을 검토해보았다. 하지만 2요인 모형은 원척도의 2요인에 따른 문항 구성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별 문항 내용을 검토했

을 때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2요인 모형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 기준을 찾아낼 수 없었다. 대안적으로 원연구자가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확정하기 전에 처음에 개념화하였던 것처럼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3요인 모형의 요인부하량을 검토하였다. 2요인 및 3요인 모형의 요인부하량은 문항내용과 함께 표 2에 나와 있다. 참고로 2요인 모형에서 요인 간 상관은 .565($p < .05$), 3요인 모형에서는 요인1과 요인2 간에는 .455, 요인1과 요인3 간에는 .460, 요인2와 요인3 간에는 .328로 모두 유의

표 2. 문항내용 및 2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의 요인부하량 (N=360)

문항 번호	문항내용	2요인 모형		3요인 모형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요인3
1	레즈비언, 게이, 바이 혹은 퀴어 같은 행동을 털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72*	.415*	.230	.401*	.012
2	내가 레즈비언, 게이, 바이 혹은 퀴어임을 알았거나 짐작했던 이성애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성적으로 접근할 것이라 예상했다.	.159*	.490*	.247	.488*	-.028
3	레즈비언, 게이, 바이 또는 퀴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치료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또는 넌지시 들은 적이 있다.	.739*	-.014	.761*	.005	-.014
4	모든 레즈비언, 게이, 바이, 퀴어인 사람들은 똑같은 것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또는 넌지시 들은 적이 있다.	.429*	.298*	.469*	.293*	.018
5	레즈비언, 게이, 바이, 퀴어들은 어린 아이들 가까이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569*	.144*	.612*	.166*	-.030
6	나는 나의 성적 지향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	-.006	.672*	.088	.660*	-.007
9	사람들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 또는 퀴어인 것은 죄라고 말한 적이 있다.	.762*	-.004	.716*	-.013	.101
10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	.266*	.513*	.181	.403*	.314*
11	레즈비언, 게이, 바이, 퀴어인 사람들은 그들의 성적 지향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또는 넌지시 들은 적이 있다.	.752*	-.039	.729*	-.021	.032
12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겹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455*	.342*	.402*	.283*	.199
13	나의 성적 지향 때문에 더 남성적으로 또는 더 여성적으로 보이거나 입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	.208*	.290*	.274*	.296*	-.037

표 2. 문항내용 및 2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의 요인부하량 (N=360)(계속)

문항 번호	문항내용	2요인 모형		3요인 모형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요인3
14	동성애혐오, 바이혐오, 혹은 퀴어혐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을 때 “그건 원래 그렇다”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506*	.326*	.385*	.213*	.349*
15	낯선 사람 또는 아는 사람이 나의 성생활에 관해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다.	-.016	.542*	.099	.540*	-.063
16	지인이나 단체가 소셜 미디어(예: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리는 내용이 나 광고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 퀴어에 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접한 적이 있다.	.443*	.210*	.311	.101	.341*
17	누군가 나를 ‘레즈비언/게이/바이/퀴어인 친구’ 또는 그와 비슷한 말로 소개한 적이 있다.	-.032	.555*	-.021	.477*	.153
18	레즈비언, 게이, 바이, 혹은 퀴어인 것은 “단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437*	.336*	.412*	.279*	.165
21	내 성적 지향은 과거에 잘못된 일 때문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또는 넌지시 들은 적이 있다(예: “네 어머니가 널 너무 고압적으로 키우셨나 봐”).	.220*	.514*	.304*	.502*	-.005
22	사람들은 나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 퀴어로서의 정체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는 않았다.	.017	.554*	-.027	.436*	.271*
23	이성애자의 성관계에 국한된 성 건강 관련 정보를 받은 적이 있다.	.238*	.225*	.045	.063	.476*
24	나는 모든 레즈비언, 게이, 바이, 퀴어인 사람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기대를 받았다.	-.065	.678*	-.100	.554*	.277*
25	나는 사람들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 퀴어를 반대하는 종교적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예 : 동성애자는 지옥 간다.)	.413*	.159*	.216	-.002	.480*
26	누군가가 동성애자로 오해받기 싫어서 “난 게이는 아니지만”이라고 덧붙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397*	.196*	.155	-.011	.600*
27	“완전 게이 같다”라는 말이 부정적이거나 바보 같거나 멋지지 않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454*	.054	.226	-.133	.538*
29	내가 레즈비언, 게이, 바이 혹은 퀴어여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과민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또는 넌지시 들은 적이 있다.	.120	.664*	.038	.529*	.357*
30	누군가 자신에게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 혹은 퀴어인 친구(들)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혐오자(호모포비아), 바이혐오자, 혹은 퀴어혐오자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114	.508*	-.040	.345*	.462*
31	누군가 “내가 레즈비언, 게이, 바이 또는 퀴어인 줄 전혀 몰랐어.”라고 칭찬으로 말한 적이 있다.	-.023	.634*	.025	.570*	.100

주. $p < .05$.

주. 각 문항이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된 요인에 지닌 요인부하량을 음영으로 처리함.

표 3. 2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의 요인 간 상관 (N=360)

2요인 모형	
요인1과 요인2	.565*
3요인 모형	
요인1과 요인2	.455*
요인1과 요인3	.460*
요인2와 요인3	.328*

주. * $p < .05$.

하게 나타났다($p < .05$). 이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부하량의 적절한 수준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통계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통계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어떠한 요인에든 .40 이하의 요인부하량을 지닌 문항의 경우에는 요인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Kahn, 2006). 3요인 모형의 요인부하량을 검토한 결과, 원칙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 가지 하위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발견하였다. 요인1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행위자가 상대의 성적 지향을 반드시 알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마이크로어그레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 또는 퀴어인 것은 죄라고 말한 적이 있다(9번 문항)’라는 내용이 가리키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특정한 성소수자를 지칭하여 행해질 수 있지만 상대가 성소수자인지 모를 때에도 일반적인 성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행해질 수 있다.

반면에 요인2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타인이 상대의 성적 지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가능한 마이크로어그레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나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 퀴어로서의 정체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는 않았다(22번 문항)’라는 내용이 지칭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행위자가 상대의 성적 지향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의 대상은 설령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성소수자 개인이 된다. 즉, 요인1과 요인2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행하는 사람이 당하는 대상의 성적 지향을 인지하고 있는가의 여부라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3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내용을 보면, 요인3은 원칙도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성소수자를 경시하는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 경제적인 자극을 포함하는 환경적 차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개인 간 의사소통 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및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비해, 의사소통을 직접 수반하지 않고도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경험하거나 타인이 마이크로어그레션 피해를 입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발생한다(Sue, 2010b). 예를 들어 16번 문항(‘지인이나 단체가 소셜 미디어(예: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리는 내용이나 광고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 퀴어에 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접한 적이 있다.’)의 내용처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접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고안한 기준으로 어떤 요인을 측정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분류하기 모호한 문항들이 다소 있었다. 10번, 13번, 14번, 16번, 30번 문항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문항들은 요인부하량에 관한 통계적 기준, 요인구분의 이론적 근거, 문항 제거 시 모형의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요인으로 분류하거나 제거하였다(DeCoster, 1998). 예를 들자면 16번 문항은 요인3에 지닌 요인부하량은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문항 내용 상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명백히 해당되는 사례라 판단되었고 해당 문항 제거 시 모형적합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인3에 분류하였다. 그 결과, 10번 문항은 요인2로, 16번과 30번 문항은 요인3으로 분류하였고, 13번과 14번 문항은 제거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가 우수하고 통계적 및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으로 구분되는 3요인 모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 모형은 통계적 기준치인 .40 이하의 요인부하량을 지니고 있거나 이론적 근거가 빈약한 문항을 제거하여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가지 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발생 가능한 차원과 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요인1과 요인2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시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대인 관계적 차원에 속한다면, 요인3은 다양한 사회제도 및 문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로 발생하는 환경적 차원에 속한다. 요인2는 특정 성소수자 개인을, 요인1은 특정한 개인을 포함한 성소수자 집단을, 요인3은 개인보다는 성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요인1은 ‘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요인2는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요인3은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결정된 24개의 문항들을 대상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이 양호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문항 제거 없이, 361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고차 요인분석의 첫 단계로서 하위 요인 없이 1요인(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만 존재한다고 가정한 1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 보았다. 추정 결과, χ^2_M 값은 940.687, df_M 은 252로서 $p < .001$ 이고 H_0 을 기각하였다. RMSEA는 .087(90% 신뢰구간 .081~.093), CFI는 .790, SRMR은 .067로, 각각 그다지 좋지 않은 적합도, 나쁜 적합도, 괜찮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 1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았으므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단일한 요인이 아니라 구분되는 하위 요인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세 가지 하위 요인이 존재하는 일차 요인모형을 추정하였다.

세 개의 일차 요인(일반적·개인적·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상응하는 관찰변수에 의하여 측정되는 일차 요인모형의 추정 결과, χ^2_M 값은 678.770, df_M 은 249로서 $p < .001$ 이고 H_0 을 기각하였다. RMSEA는 .069(90% 신뢰

표 4. 1요인 모형과 일차요인모형의 적합도 (N=361)

	χ^2_M	df_M	RMSEA	CFI	SRMR	AIC	90% 신뢰구간	
							하한	상한
1요인 모형	940.687	252	.087	.790	.067	29176.511	.081	.093
일차 요인모형	678.770	249	.069	.869	.059	28920.594	.063	.075

주. χ^2 검정 결과 $p < .001$ 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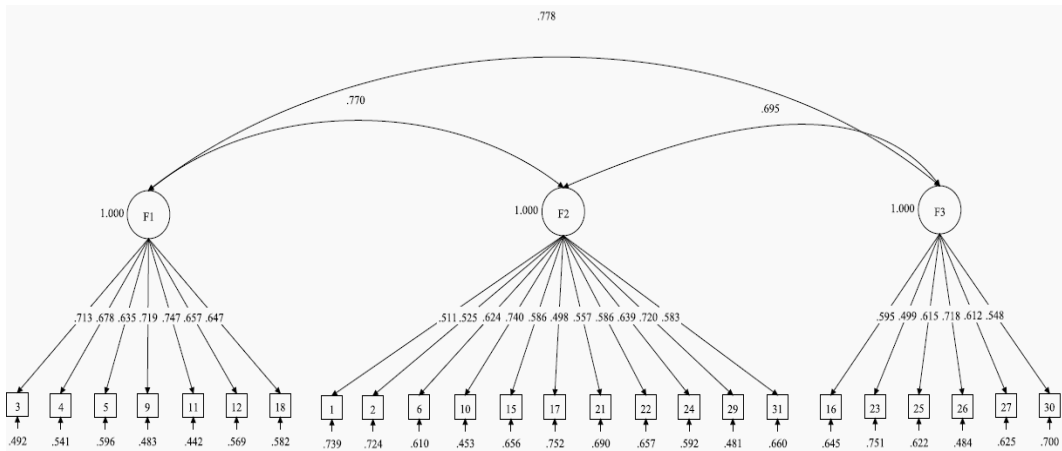


그림 1. 일차요인모형의 측정모형

주. 표준화된 추정치만 보고하였음. F1=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 F2=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 F3=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 최하단의 ‘번호’는 해당 번호의 문항을 가리킴.

구간 .063 ~ .075, CFI는 .869, SRMR은 .059로, CFI를 제외한 근사적합도 지수들은 일차 요인 모형이 괜찮은 적합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요인 모형과 일차 요인모형의 적합도는 표 4에, 일차 요인모형의 개별모수 추정치는 그림 1의 측정모형에 제시하였다.

일차 요인모형의 표준화된 개별모수 추정치를 근거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각 요인을 측정하는 지표변수들이 서로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변수의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개별모수 추정치)을 검토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지표변수가 해당 요인에 지니는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적어도 .5 이상인 경우에 수렴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배병렬, 2016). 각 하위 요인별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검토하였을 때, 모든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기준치인 .5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위: .498 ~ .747). 따라서 본 척도는 수렴 타당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하위 요인이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구별되는 요인인지 검증할 수 있는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 간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Kline(2011)은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9를 넘지 않으면 구별되는 요인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1과 요인2의 상관계수는 .770($p < .01$), 요인1과 요인3의 상관계수는 .778($p < .01$), 요인2와 요인3의 상관계수는 .695($p < .01$)로 나왔다. 따라서 세 요인이 구분되는 요인으로서 본 척도는 변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차 요인모형의 하위 요인들은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적합도는 수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간 상관이 모두 .65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위 요인들이 하나의 동일한 상위 요인을 측정하는 이차 요인모형을 추정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세 개의 일차 요인들이 이차 요인(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측정하는 이차 요인모형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χ^2_M 값은 700.213, df_M

은 251로서 $p < .001$ 이고 H_0 을 기각하였다. RMSEA는 .070(90% 신뢰구간 .064~.077), CFI는 .863, SRMR은 .064로, CFI를 제외한 근사적합도 지수들은 이차 요인모형이 괜찮은 적합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 개의 일차 요인이 이차 요인에 지닌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보면, 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878,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875,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846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차 요인들과 이차 요인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차 요인모형의 적합도는 표 5에, 표준화된 개별 모수 추정치는 그림 1의 측정모형에 제시되어 있다.

일차 요인모형과 이차 요인모형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전자에 비해 적합도가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표 5. 이차 요인모형의 적합도

($N=361$)

χ^2_M	df_M	RMSEA	CFI	SRMR	AIC	90% 신뢰구간	
						하한	상한
700.213	251	.070	.863	.064	28938.037	.064	.077

주. χ^2 검정 결과 $p < .001$ 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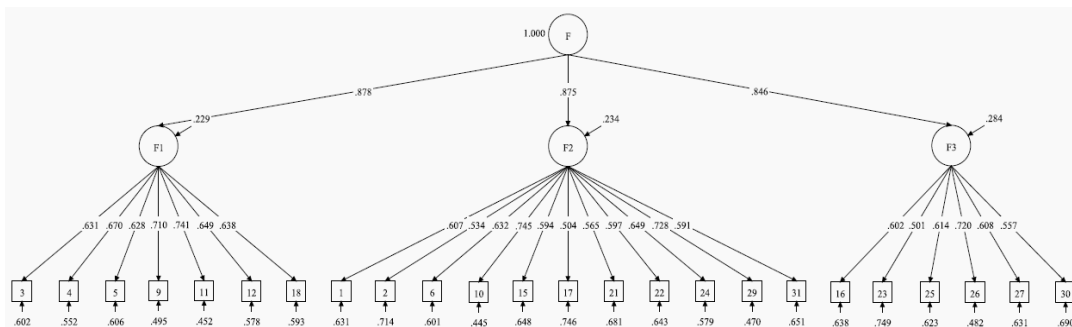


그림 2.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SOMS)의 측정모형

주. 표준화된 추정치만 보고하였음. F=마이크로어그레션, F1=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 F2=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 F3=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 최하단의 ‘번호’는 해당 번호의 문항을 가리킴.

요인분석에 이용된 세 가지 모형의 비교지수인 AIC를 살펴보았을 때, 일차 요인모형의 AIC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차 요인모형이 적합도가 양호하며 본 연구자가 하위 요인이 상위 요인인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했던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차 요인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K-SOMS의 최종적으로 확정된 측정모형은 그림 2에 나와 있다.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K-SOMS의 준거관련 타당도

중 동시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증 수준, 일반적 소속감 정도, 성소수자로서의 폭력 피해 경험 빈도, 성소수자 정체성 관련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PHQ-9, GBS, 반동성애폭력 척도, LGBIS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SOMS는 GBS와 부적 상관($r=-.299, p<.01$)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PHQ-9($r=.287, p<.01$), LGBIS의 하위 요인인 수용 걱정($r=.351, p<.01$), 반동성애폭력($r=.391,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특히 반동성애폭력의 하위 요인인 수준 1(언어적 폭력 및 위협)과의 상관계수($r=.415, p<.01$)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수준 2(다소 직접

표 6. 변인 간 상관관계

(N=361)

	마이크로 어그레션 (전체)	일반적 마이크로 어그레션 (F1)	개인적 마이크로 어그레션 (F2)	환경적 마이크로 어그레션 (F3)
PHQ-9	.287**	.277**	.232**	.244**
GBS	-.299**	-.320**	-.221**	-.249**
반동성애폭력	.391**	.286**	.458**	.209**
수준 1	.415**	.298**	.482**	.239**
수준 2	.297**	.223**	.358**	.135*
수준 3	.246**	.185**	.288**	.124*
LGBIS 은닉 동기	.084	.172**	.007	.059
LGBIS 수용 걱정	.351**	.312**	.305**	.299**
LGBIS 동성애 부정	.013	.026	.034	-.045
LGBIS 정체성 긍정	.099	.041	.137**	.059
LGBIS 정체성 불확실	.043	.073	-.005	.065
LGBIS 고된 과정	.072	.092	.072	.007
평균	1.97	1.89	1.35	3.19
표준편차	.90	1.15	.96	1.02
왜도	.337	.273	.775	-.491
첨도	-.332	-.562	.141	-.189

주. * $p<.05$, ** $p<.01$.

적인 폭력)와의 상관계수($r=.297, p<.01$) 큰 것으로, 마지막으로 수준 3(직접적인 신체적 및 성적 폭행)과의 상관계수($r=.246, p<.01$)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GBIS의 하위 요인인 은닉 동기, 동성애 부정, 정체성 긍정, 정체성 불확실, 고된 과정이란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K-SOMS의 하위 요인별로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에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하위 요인은 GBS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PHQ-9, LGBIS의 수용 걱정, 반동성애폭력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SOMS의 하위 요인은 반동성애폭력의 하위 요인과의 관계에서도 수준 1과 가장 큰 상관성을 보였고 수준 3으로 갈수록 더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원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직접적 폭력보다는 간접적 폭력과 더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의 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LGBIS의 은닉 동기와 정적 상관($r=.172, p<.01$)을,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LGBIS의 정체성 긍정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137, p<.01$). 하지만 두 상관계수가 모두 .20 이하로 실제적 유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Woodford 등(2015)의 대학 내 LGBQ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LGBQ-MCS)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SOMS)를 국내외 이성애 이외의 성적 지향을 지닌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타

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SOM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 요인은 일반적·개인적·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나타났다. 원칙도와 동일한 요인모형인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칙도와는 다른 문항 구성을 지닌 2요인 모형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없었다. 차선책으로 적합도가 우수한 3요인 모형을 검토한 결과, 원칙도와는 다른 세 가지 방식으로 하위 요인을 분류할 수 있는 이론적 기준을 고안해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K-SOMS는 행위자가 상대의 성적 지향을 알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 행위자가 상대의 성적 지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 사회적인 제도 또는 환경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이라는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통계적 및 이론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13번, 14번 문항을 제외하여 총 24개의 문항이 확정되었다.

둘째, K-SOMS의 신뢰도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전단계에서 실시한 문항분석 결과에서 각 하위 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860,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861,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761으로 나타났다.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세 하위 요인이 하나의 상위 요인을 측정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검증하였고 그 계수는 .92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SOMS는 충분한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K-SOMS의 타당도가 양호함을 확인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하위 요인별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모두 기준치인 .5 이상이었으며 요인 간 상관은 기준치인 .9 이하인 .695~.778로 나왔기 때문에 K-SOMS가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최종척도를 토대로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가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예상한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게 K-SOMS가 GBS와는 부적 상관을, PHQ-9, LGBIS의 하위 요인인 수용 걱정, 반동성애폭력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이 나타난 것을 통해 동시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LGBQ-MCS에 기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경험 빈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K-SOMS가 세 가지의 하위 요인(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측정하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많은 척도 타당화 연구가 일차적 요인분석만 실시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심화적인 통계적 기법인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본 척도가 각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관찰변수인 문항들 간의 일차원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본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란 상위 개념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들 간의 일차원성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본 척도는 각 문항이 어떤 요인을 측정하는가와 관련된 일차적 차원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뿐만 아니라, 각 요인이 하나의 동일한 상위 요인을 측정하는가와 관련된 이차적 차원의 수렴 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SOMS가 원척도와 다른 요인구조를 지니

고 있다는 결과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본 척도와 다른 3요인 구조가 나왔다는 것은 원척도와 K-SOMS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K-SOMS가 환경적 차원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적 차원에서 개인적 및 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구분된다는 점은 국내 성소수자들이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복잡한 층위로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이 성소수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도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8)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치명적이고, 이로 인해 차별의 대상이 전체가 아닌 개인에게 향할 때 영향력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성애를 제외한 다양한 성적 지향을 지닌 성소수자를 대규모로 표집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국내 사회과학 분야에서 성소수자 관련 연구는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가상준, 2016; 박수미, 정기선, 2006; 김상학, 2004), 당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들은 주로 동성애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여러 성소수자의 경험은 조명되지 않았다. 또한 그중에서도 200명 이상의 한국인 성소수자 표본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이성원, 2016; 장지윤, 2016; 임민경, 2014; 김성연, 2013; 신승배, 2013; Sohn & Cho, 2012; 강병철, 2011; 기미경, 박철민, 장창곡, 고운영, 2004)는 거의 드물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표집 대상보다 훨씬 폭넓게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등으로 구성된 총 721

명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여 당사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을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학문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에 국내의 마이크로어그레션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국내의 성소수자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관한 횡단적 및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성소수자 건강과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개입 및 교육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상담과 관련한 실천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상담자가 성소수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먼저 본 연구 결과는 상담자가 무의식적 또는 의도적으로 내담자에게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행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 성소수자 내담자에게 K-SOMS를 이용한 설문을 실시하여 어떤 유형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다. 또는 상담자가 마이크로어그레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다면, 성소수자 내담자가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을 보고할 때 이를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경험으로 타당화하고 이를 보다 명료하게 탐색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비율의 분포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20대로 편중된 특성을 보인 주된 원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20대 연령층의 활발한 참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김윤화, 2016). 연령대 이외에도 태어났을 때의 생물학적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약 70% 이상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대규모로 표본을 구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영향력은 재차 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K-SOMS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되게, 우울 증상, 일반적 소속감, 반동성애폭력, LGBIS의 수용 걱정과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GBIS의 다른 하위 요인들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연구를 통해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성소수자 정체성에 지니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이외의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여 K-SOMS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추후 연구를 통해 국내 성소수자가 실제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각 영향력의 차이와 의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K-SOMS가 원척도와 달리 3요인 구조로 나온 결과는 문항의 번안 과정에서 문항의 표현이 원래의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에서 기인할 수 있다. 특히 원척도는 미국 대학생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된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국내 성소수자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깊은 연구자, 인권활동가, 상담가, 번역가 등의 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현재 K-SOMS의 문항 내용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고려 시 질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성소수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유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K-SOMS는 여러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 존재하는 더 다양한 성소수자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성소수자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성적 정체성에 따라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며(Smalley, Warren, & Barefoot, 2016; Bostwick, Boyd, Hughes, & McCabe, 2010), 성적 지향에 따라 경험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다를 수 있다(Sarno & Wright, 2013). 그러나 K-SOMS의 문항 내용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 또는 퀴어’라는 표현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를 주된 대상으로 전제하고 이외의 성소수자들은 ‘퀴어’라는 하나의 용어로 포괄해버리게 된다. 이로 인해 무성애자(Asexual)나 범성애자(Pansexual) 등이 경험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K-SOMS는 성적 지향과 관련된 마이크로어그레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척도만으로는 사회적으로 특정한 성별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에 대한 허용과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성별 규범에 따른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러 가지의 성적 지향을 지닌 성소수자, 간성(Intersex), 트랜스젠더(Transgender), 젠더 논컨포밍(Gender Nonconforming)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지닌 성소수자들이 각각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성소수자 내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어그레션 개념과 범주가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Lilienfeld(2017)는 어떤 것을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관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어그레션 판단 여부를 전적으로 당사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는 명백한 차별로 인지되는 자극이 다른 이에게는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인지되거나, 어떤 이에겐 마이크로어그레션인 자극이 다른 관점에서는 중립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향후 연구자들이 마이크로어그레션 개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여 조작적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내릴 것을 제안한다. 또는 평정자 간 신뢰도 검증이나 문항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적 맥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대안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Lilienfeld, 2017).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마이크로어그레션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외부적 관점에서 어떠한

경험이 마이크로어그레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과학적인 수치로 계산될 수 있는 양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대신에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경험적 현실(Experiential Reality)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의미할 수 있다(Sue, 2017). 따라서 추후 연구자들은 광범위한 영역의 개인적 경험이 마이크로어그레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양적 연구와 함께 당사자가 처한 사회정치적 맥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도 실시하여 각 연구가 지닌 한계를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는 가족, 친구, TV, 책, 교육 등을 통해 직간접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이성애를 당연하고 정상적인 규범으로 수용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한 번 즈음은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해봤거나 목격했거나 행했을 것이다(Dover, 2016).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은 계속 성소수자의 삶에 크고 작게 힘을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차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별을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인,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는 성소수자 내담자의 경험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적 틀이 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누구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인지하고 예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감성 증진을 위한 심리교육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쩌면 이는 타인에 대한 ‘사소한’ 관심, 격려, 경청을 의미하는 ‘마이크로어퍼메이션(microaffirmation)’(Rowe, 2008)으로부터 천천히 시작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16). 혐오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정치관용 및 태도. *동서연구*, 28(3), 125-148.
-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 국가인권위원회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0629> 에서 2017년 3월 24일에 자료 얻음.
- 기미경, 박철민, 장창곡, 고운영 (2004). 한국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행태와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인식. *예방의학회지*, 37(3), 220-224.
- 김남걸 (2001). Likert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선정 방법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1), 169-206.
- 김성연 (2013).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으로 본 동성애자의 자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 김윤화 (2016).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STAT REPORT, 16-07호.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curPage=1&sMenuType=3&controlNoSer=43&controlNo=13868&d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NS&sDate=&sEDate=> 에서 2017년 5월 28일 자료 얻음.
- 김은경 (2001).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권정혜 (200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69-981.
-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1), 5-26.
- 박승진, 최혜라, 최지혜, 김건우, 홍진표 (2010). 한글판 우울증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의 신뢰도와 타당도. 대한불안의학회지, 6(2), 119-124.
- 박준호 (2014). 대학생 동성애 상담: 상담자 훈련을 위한 체계적 모델의 활용. 인간이해, 35(1), 53-71.
- 배병렬 (2016). Mplus 7.0 :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8), 2017년 한국 LGBTI 인권현황. http://annual.sogilaw.org/review/download_ko/2046에서 2018년 4월 1일에 자료를 얻음.
- 신승배 (2013).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380-415.
- 안재용, 서은란, 임경희, 신재현, 김정범 (2013).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의 표준화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9(1), 47-56.
- 이보람 (2015). 사회적 유대감의 다차원적 요인 구조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원 (2016). 성소수자의 공동체 의식, 긍정적 정체성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체계적 문헌 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36, 43-76.
-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민경 (2014). 남녀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윤 (2016).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허정은, 박경 (2004).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과 자살사고 (自殺思考) 간의 관계. 심리치료, 4(1), 57-72.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American Psychologist*, 67(1), 10 - 42.
- Balsam, K. F., Molina, Y., Beadnell, B., Simoni, J., & Walters, K. (2011). Measuring multiple minority stress: The LGBT people of color microaggressions scale. *Cultural Diversity and*

- Ethnic Minority Psychology*, 17(2), 163-174.
- Bostwick, W. B., Boyd, C. J., Hughes, T. L., & McCabe, S. E. (2010). Dimensions of sexual orientation and the prevalence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3), 468-475.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owan, G., Heiple, B., Marquez, C., Khatchadourian, D., & McNevin, M. (2005).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hate crimes and hate speech against gays and lesbians: Old-fashioned and modern heterosexism. *Journal of Homosexuality*, 49(2), 67-82.
- Dean, L., Wu, S., & Martin, J. L. (1992). Trends in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gay men in New York City: 1984 to 1990. In Herek, G. M., & Berill, K. T. (Eds.), *Hate Crimes: Confronting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pp. 46-64).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DeCoster, J. (1998). Overview of Factor Analysis. Retrieved <2019.05.01> from <http://www.stat-help.com/notes.html>
- Dover, M. A. (2016). The moment of microaggression: The experience of acts of oppression, dehumanization, and exploitation.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6(7-8), 575-586.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hn, J. H. (2006). Facto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raining, and practice: Principles, advances, and ap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5), 684-718.
- Kalb, N., Roy Gillis, J., & Goldstein, A. L. (2018). Drinking to cope with sexual minority stressors: Understanding alcohol use and consequences among LGBTQ emerging adults.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22(4), 310-326.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ilienfeld, S. O. (2017). Microaggressions: Strong claims, inadequate evid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1), 138-169.
- Lui, P. P., & Quezada, L. (2019). Associations between microaggression and adjustment outcomes: A meta-analytic and nar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5(1), 45-78.
- Malone, G. P., Pillow, D. R., & Osman, A. (2012). The general belongingness scale (GBS): Assessing achieved belonging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3), 311-316.
- Mohr, J., & Fassinger, R. (2000). Measuring dimensions of lesbian and gay male experie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3(2), 66-90.
- Mohr, J. J., & Kendra, M. S. (2011). Revision and extens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minority identity: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234-245.
- Nadal, K. L. (2013). *That's so Gay! Microaggressions*

- and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adal, K. L., Rivera, D. P., & Corpus, J. H. (2010). Sexual orientation and transgender microaggressions. In D. W. Sue (Ed.),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pp. 217 - 240).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Nadal, K. L., Whitman, C. N., Davis, L. S., Erazo, T., & Davidoff, K. C. (2016). Microaggressions toward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and genderqueer people: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3(4-5), 488-508.
- Pierce, C. (1970). Offensive mechanisms. In Barbour, F. B., & Barbour, F. B. (Eds), *The Black Seventies* (pp. 265-282). Boston: P. Sargent.
- Robinson, J. L., & Rubin, L. J. (2016). Homonegative microaggressions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20(1), 57-69.
- Rowe, M. (2008). Micro-affirmations and micro-inequitie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Ombudsman Association*, 1(1), 45-48.
- Sarno, E., & Wright, A. J. (2013). Homonegative microaggressions and identity in bisexual men and women. *Journal of Bisexuality*, 13(1), 63-81.
- Scharer, J. L., & Taylor, M. J. (2018). Coping with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distress and alcohol use.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22(3), 261-279.
- Shelton, K., & Delgado-Romero, E. A. (2011).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The experience of lesbian, gay, bisexual, and queer client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210-221.
- Simoni, J. M., & Walters, K. L. (2001). Heterosexual identity and heterosexism: Recognizing privilege to reduce prejudice. *Journal of Homosexuality*, 41(1), 157-172.
- Smalley, K. B., Warren, J. C., & Barefoot, K. N. (2016). Variations in psychological distress between gender and sexual minority groups.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20(2), 99-115.
- Sohn, A., & Cho, B. (2012). Knowledge,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in HIV/AIDS and predictors affecting condom use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South Korea. *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3(3), 156 - 164.
- Spengler, E., Miller, D., & Spengler, P. (2016). Microaggressions: Clinical errors with sexual minority clients. *Psychotherapy*, 53(3), 360-366.
-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rimary Care Study Group. (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JAMA*, 282(18), 1737-1744.
- Sue, D. W. (2010a).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Manifestation, Dynamics, and Impact*.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ue, D. W. (2010b).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ue, D. W. (2017). Microaggressions and

- “Evidence” empirical or experiential realit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1), 170-172.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M. B., Nadal, K. L.,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 Swann, G., Minshew, R., Newcomb, M. E., & Mustanski, B. (2016). Validation of the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inventory in two diverse samples of LGBTQ youth.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5(6), 1289-1298.
- Walls, N. E. (2008). Toward a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heterosexism: The changing nature of prejudice. *Journal of Homosexuality*, 55(1), 20-70.
- Woodford, M. R., Kulick, A., Sinco, B. R., & Hong, J. S. (2014). Contemporary heterosexism on campu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LGBQ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accepta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4(5), 519-529.
- Woodford, M. R., Chonody, J. M., Kulick, A., Brennan, D. J., & Renn, K. (2015). The LGBQ microaggressions on campus scale: A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Journal of Homosexuality*, 62(12), 1660-1687.
- Wright, J., & Wegner, R. T. (2012). Homonegative Microaggressions and their Impact on LGB Individuals: A measure validity study.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6(1), 34-54.
- Yep, G. A. (2003). The violence of heteronormativity in communication studies: Notes on injury, healing, and queer world-making. *Journal of Homosexuality*, 45(2-4), 11-59.
- Ziegler, M., & Hagemann, D. (2015). Testing the unidimensionality of item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1(4), 231-237.
- 원 고 접 수 일 : 2019. 02. 12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4. 05
게 재 결 정 일 : 2019. 05. 13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Dodam Park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K-SOMS). The validation employed item translation,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a sample of 360 individuals who self-identified as non-heterosexual. The results supported a three-factor structure with general, personal, and environmental microaggressions as subfactors. Next, item analysis and higher 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a separate sample of 361 individuals. These analyses confirmed that the fit of the 3-factor model. Reliability,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SOMS were assessed using Cronbach's α ,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and correlations between subfactors. Concurrent validity was examined by correlations between the K-SOMS and associated scales. The results indicated good psychometric properties and suggest that the K-SOMS is a useful tool for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Korean sexual minorities' discrimination experiences in future research.

Key words : Microaggressions, Sexual Orientation, Sexual Minorities, Scale Validation, Factor Analysis